

도교육청, 본격적인 수능관리체계 돌입

수능 종합상황실 운영... 교통대책·부정행위 방지 등 관리 강화

도교육청이 12일부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설치와 교통 대책 등 본격적인 수능관리체계에 돌입한다.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2019학년도 대입 수능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장을 책임자로 한 대입 종합상황실을 12일 오후1시부터 도교육청 7층 대입진학 지도지원실에 설치한다. (종합상황실 대표 전화: 239-3518, 3262) 또한 6개 시험지구의 교육지원청에도 상황실이 동시 설치된다.

종합상황실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의

등교를 위해 관공서와 국영기업체, 50인 이상 사업체의 아침 출근시간을 10시 이후로 조정토록 요청하는 등 수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에서도 경찰서와 협조해 교통통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한편 교통통제 강화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시험중 지진상황에 대비하여 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요령을 수험생 예비소집 및 감독관 사전교육에 추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 방지대책도 추진된다. 첨단 무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및 시계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능 당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렌즈,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재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다만, 시

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미제출 시 발견되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특히 수능 시험실 휴대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재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로 엄격히 규제한다. 또한 시계 점침 시 시계 뒷면에 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2019학년도 대입 수능은 전북 도내 6개 시험지구, 63개 시험장에서 20,560명이 시험을 치르고, 시험장 운영요원 및 감독관, 경찰경비 등 4,070명이 수능시험 감독 및 운영에 참여한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학교가 지난 8일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대-대전과학기술대 상호발전 위한 협약 체결

상생발전·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위한 인프라 구축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박병선)는 지난 8일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박병선 총장 및 주요 보직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효인 총장 및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두 학교는 양상호협력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상호 협력 ▲교재개발 및 기타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상호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정보 교류 활성화 ▲실용기술기재자 및 연구기기, 시설물

의 공동 활용 ▲교원 및 학생(학점) 교류 ▲지역 현안사업과 각 대학 특성 연계를 통한 협력 사업 수행 등이다.

이효인 총장은 "대학과 대학의 만남은 지역과 지역의 만남과도 같은 의미라면서 양교가 친밀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지역의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선 총장은 "학교가 지 방문해 주신 이효인 총장님 이하 대전과학기술대 관계자들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교가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육성에 있어 상호협력하고 지역중심대학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도교육청, 지자체와 교육협력 행보 강화... 14개 시군 정책간담회 추진

복지·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도교육청이 시군 자치단체와 교육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역내 교육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과 지원, 상호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활동에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 예산과 교육협력팀은 최근 정읍시와 부안군, 남원시청을 방문해 교육분야 담당 과장 및 팀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6일 정읍시청을 방문해서는 저소득층 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과 정읍

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학생진로 교육 강화 등을 협의했다.

정읍시 교육협력 담당자는 "학교안 전지킴이 방안이나, 학생체육복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유진섭 시장님 취임이후 교육분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지난 10월 22일 부안군과의 정책 협의에서는 2023년 세계잡버리 대회가 부안군 일원에서 열리는 만큼 학생과 교사의 스카우트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부안군 자치행정과 교육 담당자는 "권익향진 군수 취임 후 학생 글로벌 문화 활동, 인문학교육, 학교별 특성

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8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지원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역의 교육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인식 아래 교육협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0월 2일에는 남원시 비서실과 교육체육과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원시 교육담당자는 "지난 9월 29일 구)남원시청사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되었다"며 "남원은 교육지원청과 시청 간의 협력이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최두현 교육협력팀장은

"지자체의 교육협력 분야 예산 지원에 감사드리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장애인, 귀농인 자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각 시군 지자체, 전북도청 등과 지속적인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14개 시군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교육협력팀 관계자는 "2019년에는 시군 지자체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도민 설문 조사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와 교육협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한적십자사 감사패 수상... 사회공헌 공로 인정

전주대는 지난 7일 개최된 대한적십자사 창립 113주년 기념 전복지사 연차대회에서 2018년도 적십자 후원회원 모집에 기여하고 나눔과 사회공헌 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감사패'를 받았다.

더불어 사회봉사센터 김광혁 센터장은 대한적십자사 전복지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주대는 2015년 3월 대한적십자사 전복지사와 나눔과 실천을 약속하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봉사인증제 도입,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기부문화 확산, 생명나눔 실

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주대와 대한적십자사 공동으로 사회봉사인증제를 도입하여 많은 재학생들이 헌혈 나눔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사회봉사인증제란,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중 나눔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성, 경험,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전주대학교와 대한적십자사 전복지사 간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해 도입한 자율참여 나눔인증제도다.

김광혁 센터장은 "앞으로 잠재적인 봉사자 양성 및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헌혈봉사를 비롯한 학생 사회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지역인문학센터,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실시

전주대(총장 이효인) 인문학플러스(HK+)연구단(단장 변주승) 은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5일부터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읍시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나의 삶, 나의 이야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수강생의 심상 치료와 더불어 '구술 자서전 쓰기'를 목표로 12월 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의를 진행하는 박정혜(심상치료를 센터)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각자의 삶을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지나는 인생과 남은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감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백진우(한국어문학과 교수) 지역인문학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문학 강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강좌를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전주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초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실시

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일 도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 373명을 대상으로 2층 강당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교통안전 담당교사들이 관련 전문지식 및 학습방법 등의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전함으로써 바람직한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해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6일 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 251명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진행했고 9일 초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2차 연수를 실시했다.

도로교통공단 전수연 교수의 '통계로 알아보는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 이해하기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담당교사들이 관련 법령 및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이해한 후 학생들의 교통안전 지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 위험행동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고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